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화

황향희¹·김보람²

¹강원대학교 교수·²고려대학교 연구교수

Conceptualization of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Hwang, Hyang-Hee¹·Kim, Bo-Ram²

¹Kangwon National University·²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examining the resolution of leisure inequality for citizens and social class members who are in a blind spot regarding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reduction in leisure gap in terms of leisure welfare, along with the aim of conceptualizing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RLD). This study employed the Delphi method, with three iteration of surveys with a panel of 16 experts. Based on the result, RLD was defined as “a subjective emotional state in which an individual perceives leisure resource as being relatively unequal.” Additionally, three sub-factors were derived. First, resourceful leisure deprivation refers to a leisure resource that an individual perceives as unequal. Second, emotional leisure deprivation occurs when an individual perceives leisure resource as being unequal. Third, cognitive leisure deprivation refers to the level of awareness an individual has regarding leisure resou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baseline data for seeking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in ensuring citizens’ basic right to leisur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lated to leisure, and one’s right to receive leisure education.

Key words: Relative Leisure Deprivation(RLD), Conceptualization, Resourceful RLD, Emotional RLD, Cognitive RLD

주요어: 상대적 여가박탈, 개념화, 자원적 여가박탈, 감정적 여가박탈, 인지적 여가박탈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6361)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Boram

Korea University, Anam-ro 145,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brh@naver.com

Received: August, 10, 2020 Revised: August, 31, 2020 Accepted: August, 31, 20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일상에서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가늠하지 않을까 싶다.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비교기준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만족 혹은 불만족하는 기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회비교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비교대상으로 여긴다(Festinger, 1954). 즉,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RD)은 Samuel A. Stouffer와 그의 동료들이 1949년 저술한 ‘American Soldier’ 시리즈에서 소개한 후 사회과학 전반에서 본격적인 이론으로 서서히 진화해왔다(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 2012).

Townsend(1979)는 상대적 박탈을 중심으로 빈곤현상을, Davis(1959), Runciman(1966)은 준거집단행동이론(Crosby, 1976)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해 설명했다. 그들에 따르면, 상대적 박탈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박탈의 절대적인 결과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Smith와 Pettigrew(2015)는 개인 또는 한 집단이 상대방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 판단이 분노와 원망, 특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판단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정의했다.

예측 불허한 지금의 시대가 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서는 건강은 필수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가는 권리이자 기본욕구이다. 즉, 건강하고 기본욕구인 여가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는 삶은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지금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과거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시대를 분리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 전후로 시대구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전 세계가 유례없이 코로나19(COVID-19)사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슬로건과 함께 공공체육시설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 스포츠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모두가 전면 중단하는 사태를 겪었다. 장기화된 코로나 19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스트레스, 불안,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코로나블루(corona blue)라고 한다. 최근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2020. 7월 1일)에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문화·여가를 통한 코로나 블루극복’(42.3%)이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250명(온라인 190명, 오프라인 60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한 응답결과이다(정광욱, 2020. 7. 14일자 인천뉴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여가를 통한 문화생활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여가불평등을 초래한다. 광재현, 홍경완(2017)은 소득불균형은 여가불평등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경제 불황을 심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캠핑, 차박, 호캉스, 홈트레이닝 등 새로운 여가트렌드가 등장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만의 여가활동을 찾아 즐기고 있다. 반면 그들을 바라만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은 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여가활

동 기반과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상대적 여가박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가불평등의 상대적 상태를 강조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기준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적절한 삶의 여가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의 박탈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나 국가와 관련된 경험적 실증적인 상대적 불이익이다.

1949년 상대적 박탈감(RD)이 소개되고 사회과학이론으로 진화했지만 여가불평등과 관련된 상대적 박탈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득, 소비구조와 관련된 상대적 박탈(김태성, 손병돈, 2016; 서봉균, 2010; 이상일, 2008; Runciman, 1966; Wilkinson, 2001; 2005; 2010), 사회경제적 박탈(송인한, 이한나, 2011; 엄순옥, 2016; 이민옥, 2018; 허중호, 조영태, 권순만, 2010; Drukker & Os, 2003; Yitzhaki, 1982), 민족, 인종, 지역 간의 갈등과 원인이 되는 상대적 박탈감(김동진, 2018; 박근석, 2002; 이영란, 2005; 탁장한, 2016; 하재만, 2015; Silber & Verme, 2012), 운동박탈(권혁주, 김병준, 2016; 이슬, 홍준희, 김경원, 2009; 전윤창, 김병준, 김윤희, 2017; Baekeland, 1970; Szabo, 199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Townsend(1979)가 가구생활양식을 조사하여 박탈지표를 도출하였는데 그 중 여가를 하나의 요소로 포함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여가복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여가박탈’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개념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가참여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여가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여가격차를

줄이는 여가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첫 출발로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전에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2018-08-005-002)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고, 상대적 여가박탈(Relative Leisure Deprivation, RLD)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델파이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상대적 여가박탈의 정의와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개념화하였다.

1. 델파이 조사 방법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집단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용한다. 면대면 토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효과를 제거한 일종의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이다(이중성, 2006). 따라서 델파이 연구방법에서 델파이 토론자 즉 델파이 패널(Delphi panel) 구성이 중요하다.

2. 델파이 패널 구성

본 연구는 상대적 여가박탈(RLD) 개념화 정립을 위해 16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관련학회 편집위원 16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여가레크리에이션 학문분야의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전문가 패널은 최소 10명이상으로, 10명에서

표 1. 델파이 패널의 현황

ID	전공	직위	학위
1	여가·스포츠 심리학 및 교육학	교수	박사
2	여가마케팅 및 산업	교수	박사
3	여가교육	교수	박사
4	여가교육	연구교수	박사
5	여가사회심리학	교수	박사
6	치료레크리에이션 및 여가정책	연구원	박사
7	여가사회심리학	교수	박사
8	여가교육	교수	박사
9	치료레크리에이션	교수	박사
10	여가복지	교수	박사
11	여가사회심리학	교수	박사
12	여가레크리에이션학	교수	박사
13	여가복지	연구교수	박사
14	여가레크리에이션학	교수	박사
15	여가사회심리학	교수	박사
16	여가레크리에이션학	교수	박사

15명이 적절하다(Delbecq, Van de Ven, & Gustafson, 1975; Murry & Hammons, 1995). 본 연구는 3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간에 이탈자 발생을 고려해서 편집위원 16명 모두를 선정하였다. 사전에 전화통화로 패널에게 연구목적과 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다. 3차 델파이 조사까지 참여한 패널은 총 16명으로 <표 1>과 같다.

3. 델파이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과 하위 요인을 정립하기 위해 합의 델파이(consensus Delphi)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의 델파이는 동일한 전문성을 가진 패널 구성에서 문제 상황을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적합한 경험과학에 기초한 조사방법이다. 본 연구는 3회에 걸쳐 개방형설문과 폐쇄형설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수정·지시하도록 요청하여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

차별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3인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사전검토를 실시하였다.

1) 1차 델파이 설문지

1차 델파이 설문지는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선행연구의 ‘박탈과 상대적 박탈’의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상대적 여가박탈’의 정의와 핵심 키워드를 주관적 판단인 개방형(open ended)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2차 델파이 설문지

2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도출된 ‘상대적 여가박탈의 정의’와 ‘핵심키워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해 4점 Likert척도를 제시하는 폐쇄형 질문지(closed-ended question)와 수정·지시의견을 요청하는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을 병행하여 구성하였다.

3) 3차 델파이 설문지

3차 델파이 설문지는 2차 델파이 조사결과 타당도 기준에 부합하고, 패널들의 지시사항을 수용하여 결정된 이행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델파이 조사로 ‘상대적 여가박탈의 하위요인’을 정리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보다 세분화한 5점 Likert척도로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는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과 수정·지시의견을 묻는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차부터 3차까지 실시된 델파이 조사의 자료 수집은 패널이 원하는 이메일과 SNS를 통해 수집이 이루어졌다. 델파이조사 패널은 총 16명으로 1차, 2차, 3차 응답현황은 응답률 100%였다. 자료 분석은 회차별로 개방형 설문지는 문장성분별 귀납적 분류과정을 통해 응답

된 단어빈도가 2회 이상인 의견을 분석에 반영하였다(김민규, 2014; 김태환, 황선환, 2018). 도출된 자료는 최종 전문가 3인과의 회의를 거쳐 결과에 반영하였다.

폐쇄형 설문지는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집중경향치(중위수, 최빈값), 긍정률(CVI, CV) 등을 통해 타당도 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균값 이상, 내용타당도 지수(CVI) 75%이상(Hasson,

Keeney & McKenna, 2000; Lynn, 1986), 상대적 일탈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인 변이계수(CV)는 .50 미만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당도 기준에 부합해 채택된 경우와 패널들의 수정·지시의견을 종합해서 3인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최종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2. 1차 델파이 조사 응답결과 및 결과도출과정

구분	~에/~의/~에 대한	~에 따른/~으로 인한	~하는/~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술어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나 집단과 비교해서 - 타인과 비교하여 - 타인 또는 집단 등과 비교해서 - 타인과 다른 집단에 비해 - 사회일원으로 - 개인이 - 개인이 -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해 타인에 비해 - 다른 준거집단(개인, 가정, 사회)의 -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 개인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 개인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 개인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 자기 자신에 대한 - 타인 혹은 집단 등 비교대상에 비해 - 개인이 	<p>자신의 여가자원이 이상적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시간, 여가향유 기회, 여가정보 등 여가자원의 획득 및 활용기회를 여가활동 전반과 여가기회가 여가자원과 활동에 있어서 여가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활동참여에 여가행위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서 선택의 폭에 따른 개인적,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여가 비교에서 이상적인 여가기회와 여가경험의 기준에 여가를 자유시간과 자발적인 활동 그리고 자아실현을 경험하는데 여가활동이 주변인들과의 생활공간에서 나타나는 여가교류현상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공유과정에서 여가를 여가활동 영역에 대해</p>	<p>결핍한 것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비교할 때 느끼는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피해를 느끼는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현실적 삶의 조건들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즐기고 누려야하지만 - 물질적, 정신적 서비스의 -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여가기회와 여가경험이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들과 현실적 조건 간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거나 여가만족이 낮게 느껴지는 물질적,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여가활동과 사회문화적 기준과의 괴리감에서 오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감정상태 -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느끼는 불만족 - 부정적 감정상태 - 부정적인 감정상태 - 사회심리적 괴리감 - 불만족하고 결핍된 상태 - 상대적 불이익 - 불공평하게 느끼고 있다고 지각하는 상태 - 느끼는 주관적 느낌 - 불만족상태 - 상대적 불이익의 부정적 경험 - 미치지 못하는 상태 - 부정적인 감정상태 - 심리적 괴리 - 여가부족분 현상 - 충족하지 못한 상태 - 지배력을 상실한 상태
출력	<p>개인이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p>	<p>여가참여기회와 여가자원, 여가환경 등에 대해</p>	<p>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문화적 기준의 격차에서 느끼는</p>	<p>부정적 감정상태</p>
결과	<p>개인이 타인이나 타집단과 비교해 여가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가기회, 여가정보 및 환경 등의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이다.</p>			

Ⅲ. 결과

1. 상대적 여가박탈의 정의

상대적 여가박탈(Relative Leisure Deprivation, RLD)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주어와 술어를 기준으로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분류를 한 결과 <표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인이 타인이나 타집단과 비교해 여가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가기회, 여가정보 및 환경 등의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로 초안이 도출되었다. 초안결과는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여가레크리에이션학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거쳤다.

전문가협의과정 중 상대적 여가박탈의 용어에서 ‘상대적’이라는 나와의 비교대상이 있기에 ‘개인’을 주어로 채택했고,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함에 따라 ‘여가전반의 상황’을 시간, 활동, 경험, 자원, 물질적·사회적·사회문화적 기준, 환경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여가자원’을 채택했다. 술어는 ‘부정적 감정상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결핍, 기준과의 격차,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낮다고 느끼거나 불만족해서, 기준과의 괴리감으로, 부당하다고 피해를 느껴서 등이 제시됨에 따라 ‘불평등’이라는 원인적인 용어와 ‘주관적 감정상태’의 느낌을 분리하고 채택하였다.

<표 3>은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상대적 여가박탈(RLD)의 정의 초안의 타당성 분석결과이다. 상대적 여가박탈 정의의 평균은 3.50으로 기준치 2.0이상이고, 표준편차는 .52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경향치 중 중위수는 3.50, 최빈값은 3.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내용타당도 지수(CVI)는 100%(1.00)로 나타났고, 변이계수 값(CV)도 .15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여 통계적으로도 상대적 여가박탈(RLD)의 정의가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상대적 여가박탈(RLD)’ 정의를 제시하고 타당성 평정을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정, 삭제, 추가에 대한 의견제시를 부탁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결과, 통계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전문패널이 제시한 수정지시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실시한 결과 <표 4>의 과정을 거쳐 ‘상대적 여가박탈(RLD)’의 정의는 ‘개인이 전반적 여가자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회의를 반영한 결과, 개인들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상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제한하여 개념화하였다.

표 3. 상대적 여가박탈 정의의 타당성 2차 델파이조사 응답결과

상대적 여가박탈의 정의	2차 델파이조사 결과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I	CV
개인이 타인이나 타집단과 비교해 여가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가기회, 여가정보 및 환경 등의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	3.50	.52	3.50	3.00	1.00	0.15

※ 기준치: 평균 2.0 이상(4점 리커트), CVI값 .750이상, CV값 .50미만

표 4. 상대적 여가박탈(RLD)의 정의에 대한 수정지시사항(2차 델파이조사)

수정지시사항	전문가 논의 내용
문장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어색함. 간결함 필요.	글의 간결성과 가독성이 필요함에 따라 중첩된 용어를 찾아 줄이기로 결정
중첩된 내용의 간결화	본 연구는 비교대상이 있는 '상대적 여가박탈' 연구로 '개인'이 타인이나 집단과 비교해를 삭제하기로 결정
	여가전반의 상황과 여가기회, 여가정보 및 환경 등의 여가자원이 중첩됨
	여가기회, 여가정보, 환경은 여가자원으로 함축함

2. 상대적 여가박탈(RLD)의 하위요인 및 정의

상대적 여가박탈의 하위요인 및 정의는 2차 델파이조사의 귀납적 범주 분류화 분석에서 개인이 느끼는 '전반적 여가자원'에 대한 상대적 여가박탈에 초점을 맞춰 요인을 분류해야 한다는 3인의 전문가회의결과를 수용하였다. '전반적 여가자원'은 하위요인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1·2차 델파이조사에서 전문패널이 제시한 핵심키워드는 여가관련 시간, 활동, 여가향유 기회, 경험, 비용, 정보, 시설, 공간, 환경 등의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여가권리와 여가자원은

상대적 여가박탈의 표준지표가 되었다. 표준지표란 '개인이 상대적으로 여가권리와 여가자원을 보장받지 못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일반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전문가들의 빈도 및 응답률에 따른 상대적 여가박탈의 하위요인 핵심키워드는 총 25개의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2차 델파이조사의 전문패널 결과를 바탕으로 3인 전문가회의에서는 반응빈도가 10% 이하인 하위요인을 제외한 '물질적 여가박탈, 감정적 여가박탈, 인지적 여가박탈'로 하위요인을 채택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

2차 '상대적 여가박탈 정의'에 대한 내용타당도 조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반면, 3차 하위요인에 대한 내용타당성 평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척도를 세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4점에서 5점으로 변경하자는 3인 전문가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긍정률을 나타내는 내용타당도지수(CVI)는 75%이상(Hasson, Keeney & Mckenna, 2000; Lynn, 1986)이면 되는데 척도가 높을수록 세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차 델파이조사결과,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은 최종 3개의 요인으로 채택되었고, 하위요인 정의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 물질적 여가박탈의 정의 평균은 4.25로 기준치 3.0이상이고, 표준편차

표 5. 상대적 여가박탈의 하위요인 핵심키워드

(중복응답)

요인	빈도 (명)	응답률 (%)	요인	빈도 (명)	응답률 (%)
물질적	13	22.0%	객관적	1	1.7%
감정적	10	16.9%	주관적	1	1.7%
인지적	8	13.6%	활동적	1	1.7%
행동의도적	3	5.1%	시간적	1	1.7%
사회적	3	5.1%	인적	1	1.7%
문화적	3	5.1%	정신적	1	1.7%
경제적	1	1.7%	신체적	1	1.7%
개인이기적	1	1.7%	교육적	1	1.7%
집단우애적	1	1.7%	규범적	1	1.7%
사회문화적	1	1.7%	인지감정적	1	1.7%
개인적	1	1.7%	심리적	1	1.7%
내적	1	1.7%	구조적	1	1.7%
외적	1	1.7%	전체	59	100%

는 .93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경향치 중 중위수는 4.50, 최빈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내용타당도 지수(CVI)는 81%(0.81)로 나타났고, 변이계수 값(CV)도 .22로 나타나 물질적 여가박탈의 정의는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감정적 여가박탈, 인지적 여가박탈의 주요내용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여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 정의는 통계적

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타당성은 확보하였지만 전문패널이 제시한 수정지시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3인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7>의 과정을 거쳐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의 정의는 <표 8>과 같이 자원적 여가박탈, 감정적 여가박탈, 인지적 여가박탈 3개의 하위요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표 6.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 정의의 타당성 3차 델파이조사 응답결과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의 정의		3차 델파이조사 결과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I	CV
물질적 여가박탈	개인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전반적 여가자원	4.25	.93	4.50	5.00	0.81	0.22
감정적 여가박탈	개인이 전반적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상태	4.44	.73	5.00	5.00	0.88	0.16
인지적 여가박탈	개인이 전반적 여가자원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	4.19	.91	4.00	5.00	0.81	0.22

※ 기준치: 평균 3.0 이상, CVI값 .75이상, CV값 .50미만

표 7.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 정의에 대한 수정지시사항(3차 델파이조사)

수정지시사항	전문가 논의 내용
- '전반적 여가자원'에 대한 범위 규정이 필요함 - '물질적'이라는 단어가 여가자원보다 협소함 - 여가자원 부분을 물질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대체용어 필요 - '전반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임	- 1차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화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그 당시 '여가전반의 상황과 여가기획, 여가정보 및 환경 등을 여가자원으로 함축'하게 되었음 - 수정지시사항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질적---> 자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로 제시하기로 결정
- 물질적 여가박탈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이므로 '상대적'이라는 용어 삭제제 제안 - 하위요인 정의에서 마무리 술어의 용어통일을 제안	- 의견수렴해서 삭제하기로 결정 - 자원적 여가박탈은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가자원'으로 수정함 - 수용하기로 함. 따라서 <표 8>로 최종 결정

표 8.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의 최종 정의

상대적 여가박탈 하위요인의 정의	
자원적 여가박탈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가자원
감정적 여가박탈	개인이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상태
인지적 여가박탈	개인이 여가자원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

IV. 논의 및 결론

한국사회는 2017년 3월 21일부터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여가향유권 보장과 여가에 관해 차별을 금지하고, 여가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회권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여가백서, 2007).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여가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느끼는 여가박탈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사회의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3차에 거친 델파이조사는 상대적 여가박탈의 정의와 하위요인의 구성 및 정의를 도출하였다.

델파이조사결과 첫째, 상대적 여가박탈(Relative Leisure Deprivation, RLD)은 ‘개인이 전반적 여가 자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로 정의되었다. 현재 상대적 여가박탈(RLD)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1949년 상대적 박탈의 개념이 처음 소개(Crosby, 1979)되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만큼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 Davis모델, Runciman모델, Crosby모델, Gurr모델이 있다. 이 모델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박탈(Deprivation)’의 개념과 그러한 박탈의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과 비교하게 된다’는 ‘상대성(Relative)’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회의결과를 반영해, 개인들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상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제한하여 개념화하였다.

Runciman(1993)은 상대적 박탈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원하는 X를 가지

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불만족’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X’는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X’는 ‘여가(Leisure)’에 초점을 맞췄다. 여가란 ‘노동시간과 생활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재량시간(discretionary)에 자유선택에 의해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참여하여 자유감을 인지하는 활동’이다(박세혁, 2010).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건강하고 기쁨을 구하는 여가권리를 보장받는 삶은 행복하다. 우리는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제공받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법에 있는 여가권리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어도 여가격차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말한다. 개인이 여가활동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가시간과 비용, 공간 및 시설 등의 자원과 환경이 주어져야 하지만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만족도와 행복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부족하다고 인식’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대상이 존재한다.

이유진과 황선환(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고,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사회적 박탈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태성, 손병돈, 2016). 또한곽재현, 홍경완(2017)은 소득의 증가는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시간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Easterlin, 1974)는

연구결과를 주장했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절대적인 기준의 비교대상이 아닌 사람들마다 전반적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상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 판단기준에 의존한다는 것이 상대적 여가박탈(RLD) 정의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상대적 여가박탈(RLD)의 하위요인은 자원적 여가박탈, 감정적 여가박탈, 인지적 여가박탈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먼저, 자원적 여가박탈은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가자원이다. 즉,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X'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적 여가박탈(RLD)에서 'X'는 여가전반의 상황으로 시간, 활동, 경험, 기회, 자원, 물질적·사회적·사회문화적 기준, 정보, 공간, 환경 등이 포함된다. 이것이 여가자원으로 일축되고 개인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여가자원이 자원적 여가박탈로 정의할 수 있다.

Oppenheim(1998)은 박탈의 개념을 물질적 기준과 서비스 및 적절한 삶의 여가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설명하였으며, Townsend(1979)는 영양, 의복, 주택, 환경, 노동 등의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박탈을 제시하였는데, 결핍에서 오는 물질적 박탈과 고용관리, 가족활동, 사회참여, 여가, 교육 등의 결핍에서 오는 사회적 박탈로 구분하였다. 또한, 박탈은 경험되는 생활상태의 수준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참여결핍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생활양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자원부족요인에서 발생한다고 주장(Townsend, 1987)한 바 있다. 허종호 등(2010)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충분한 자원에 대한 결핍의 결과로 초래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결핍과 불이익 현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박

탈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박탈을 다양한 결핍상황에서의 물질적, 사회적 등의 자원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의 상대적 여가박탈의 하위요인인 자원적 여가박탈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감정적 여가박탈은 개인이 여가자원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이다. 타인이나 타지역과 비교해서 자신이 혜택 또는 이익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기준과 비교해서 부당하거나 그로 인해 분노하는 부정적 감정상태(이선정, 2017; Smith et al., 2012; Yang et al., 2008; Zhang, Tian, Lei, Yu, & Liu, 2015)를 의미한다. 감정적 여가박탈은 객관적이거나 또는 절대적인 박탈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지각된 불평등, 불이익과 관련된 심리적 감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분노와 불만족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과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자원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감정적 여가박탈을 의미한다.

Smith 등(2012)에 따르면 인지된 개인 또는 집단 박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는 현상의 기본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박탈감을 인지하는 사람의 위치와 대상과의 상대적 거리, 사람들의 반응에서 혼합된 감정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Smith & Pettigrew, 2015). 심영(2015)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박탈은 기대라는 준거기준에 대한 현실적 충족이라는 상대성과 기대와 충족 간의 격차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현재로서 개인이 지닌 결과를 타인과 비교할 때 분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하재만, 2015). 심정인, 김순미(2015)는 상대적 박탈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현재 상황이 나쁘다고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빈곤이나 불만으로, 개인의 감정 상태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박탈로 설명되어 짐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존의 상대적 박탈은 비교와 불만족으로 인한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두어 불평, 불만, 분노, 실망과 같은 감정 상태를 중점으로 측정이 시작된 바 있다(박래효, 2004).

마지막으로 인지적 여가박탈은 개인이 여가 자원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가불평등에 대한 지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입장이나 타지역과 비교해 개인이 여가자원의 혜택이나 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 간 차이의 지각을 의미한다.

Folger(1986, 1987)가 제안한 준거인지이론(Referent Cognition Theory)은 개인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 직접 상대적 박탈을 설명하기보다 그 결과를 얻은 절차적 인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준거인지이론은 분배정의와 절차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평등에 대한 지각을 설명하였다. 인지적 여가박탈 관점에서 준거인지이론을 적용해보면 분배정의와 절차정의에서 개인이 타인이나 타집단의 입장과 여가자원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비교이론에서 초래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 소득분배의 불공정, 불평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공된다(이기정, 이희선, 2012). 과연 국민들의 기본적인 여가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공여가복지서비스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 국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을까? 상대적 여가박탈의 개념화 연구는 여가불평등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국민 누구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여가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가활성화 정책이 수립되는 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현, 홍경완(2017). 소득에 따른 여가 불평등: 여가시간·지출과 행복의 관계. *관광연구*, 32(5), 293-309.
- 권혁주, 김병준(2016). 운동중독자의 운동박탈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변화양상.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7(4), 47-62.
- 김동진(2018). 영국의 지역 단위 박탈 수준 측정 현황과 활용.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5, 108-119.
- 김민규(2014). *한국형 여가중독 개념화를 통한 척도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천.
- 김태성, 손병돈(2016). *빈곤론*. 서울: 형지사.
- 김태환, 황선환(2018). 진지한 여가비용의 개념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3), 83-96.
- 박군석(2002).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상대박탈 경험 및 집합행동-영호남인의 지역간 갈등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래효(2004). *노동조합원의 노동조합참여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 박세혁(2010). *디지털 시대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서울: 가림출판사.
- 서봉균(2010). *상대적 박탈과 소비구조가 경제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인한, 이한나(2011). 사회경제적 박탈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2(3), 33-51.
- 심영(2015). 생계비를 통해 본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237-253.

- 심정인, 김순미(2015). 상대적 박탈 인지가구의 소비유형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53(5), 489-502
- 엄순옥(2016).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의 매개 효과와 종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기.
- 이기정, 이희선(2012).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211-238.
- 이민옥(2018). 사회경제적 박탈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상일(2008). 상대적 박탈의 논리와 소득의 차원을 비교적으로 적용한 빈곤선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185-225.
- 이선정(2017). 빈곤화 기제로서의 강요된 소비 사회-중산층의 과부담 소비와 다차원적 박탈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슬, 홍준희, 김경원(2009). 운동중독 성향 생활체육참가자의 운동박탈 경험.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2), 129-143.
- 이영란(2005). 통일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포커스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1), 137-165.
- 이유진, 황선환(2018). 가구소득과 여가시간에 따른 행복지수.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1), 86-96.
- 이종성(2006).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총서 시리즈: 델파이방법*, 교육과학사.
- 전윤창, 김병준, 김윤희(2017). 운동중독자의 운동박탈이 감정과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3), 115-127.
- 정광욱(2020. 7. 14일자). '인천시, 코로나 이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인천뉴스.
- 탁장한(2016). 거주지역의 박탈수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맥락효과: 이웃관계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111-133.
- 하재만(2015). 외식기업 사회구조요인이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2010).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4(2), 93-120.
- Baekeland, F. (1970). Exercise deprivation: Sleep and psychological reac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2, 365-369.
- Crosby, Faye. (1976). A Model of Egoistical Relative Deprivation. *Psychological Review*, 83(2), 85-113.
- Crosby, Faye. (1979). Relative Deprivation Revisited: A Response to Miller, Bolce, and Halliga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1), 103-112.
- Davis, J. A. (1959). A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Sociometry. *Sociometry*, 22(4), 280-296.
- Delbecq, A. L., Van de Ven, A. H., & Gustafson, D. H.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A guide to nominal group and delphi processes*. Glenview, IL: Scott, Foreman and Co.
- Drukker, M. & Os, J. (2003). Mediators of Neighborhood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Quality of Life. *Society of Psychiatry*, 38, 689-706.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olger, R. (1986). A referent cognition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 4, 33-35.
- Folger, R. (1987). *Reformulating the preconditions of resentment: A referent cognitions model*. In J. C. Masters & W. P. Smith (Eds.), *Social comparison, social justice,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p.183-21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sson, F., Keeney, S., & McKenna, H.(2000). Research guideline for the Delphi survey techniqu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4), 1008-1015.
-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5.
- Murry Jr, J. W.,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 Oppenheim, C. (Ed.). (1998). *An inclusive society: strategies for tackling poverty*.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on twentieth 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nciman, W. G. (1993).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Hampshire, Gregg Revivals.
- Silber J., & Verme, P. (2012). Relative deprivation, reference groups and the assessment of standard of living. *Econ Sys*, 36(1), 31-45.
- Smith, H., Pettigrew, T. F., Pippin, G., & Bialosiewicz, S. (2012). Relative deprivation: A theoretical and meta-analytic critiqu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03-232.
- Smith, H. J. & Pettigrew, T. F. (2015). Advances in Relative Deprivation Theory and Research. *Social Justice Research*, 28, 1-6.
- Szabo, A. (1995). The impact of exercise deprivation on well-being of habitual exercise. *The Australian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27, 68-75.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New York: Penguin Books.
- Townsend, P. (1987). Deprivation. *J Social Policy*, 16(2), 125-146.
- Wilkinson, R. G. (2001). *Mind the gap: hierarchies, health and human evolution*. Yale University Press. 건강불평등: 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가? 손한경 (역)(2011), 이음.
- Wilkinson, R. G.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The New Press. 평등해야 건강하다: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김홍수영(역)(2008), 후마니타스.
- Wilkinson, R., and Pickett, K. (2010).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Penguin UK. 평등이 답이다:

-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 전재웅(역)(2012).
- Yang, H., Ramasubramanian, S., & Oliver, M. B. (2008). Cultivation effects on quality of life indicators: Exploring the effects of American television consumption on feelings of relative deprivation in South Korea and India.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52(2), 247-267.
- Yitzhaki, Shlomo.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Economic Welfare. *European Economic Review*, 17(1), 99-113.
- Zhang, H., Tian, Y., Lei, B., Yu, S., & Liu, M. (2015).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boosts materialism. *Basic Applied Social Psychology*, 37(5), 247-259.